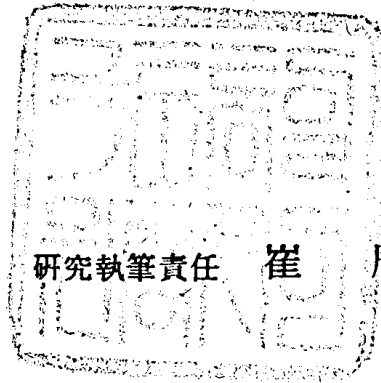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 産業構造와 實態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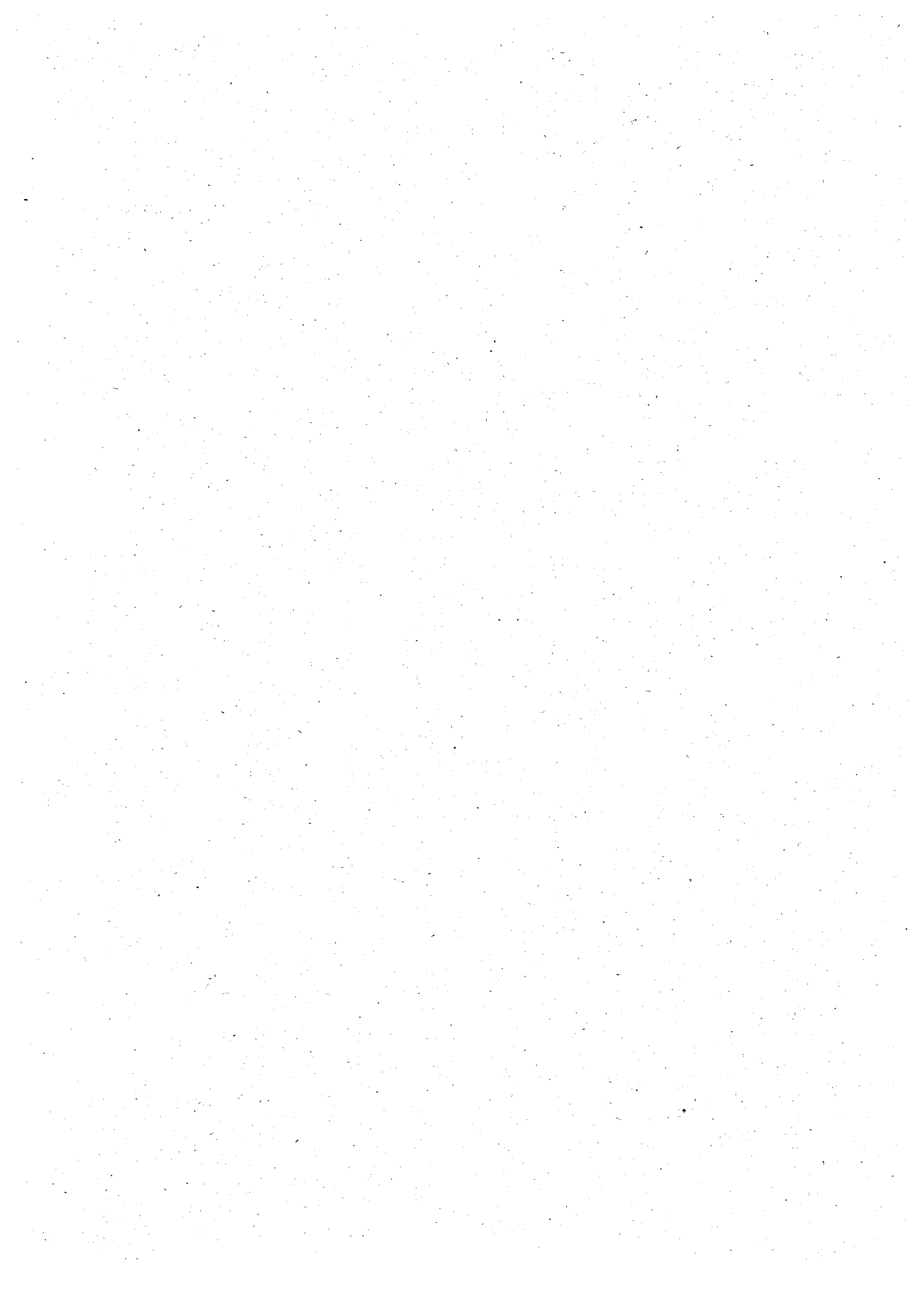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崔 周 煥 (韓國銀行)

刊行責任 沈 載 權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머 리 말	1
第一章 南北韓의 産業構造	3
I. 分断直後の 産業与件	3
II. 6.25 動乱과 戰後産業復旧	6
III. 産業開發計劃과 成果	10
IV. 産業部門間 均衡 및 部門内 構成	16
第二章 南北韓産業의 実態	21
I. 農 業	21
II. 賦存資源 및 鉅業	27
III. 製造業	31
IV. 社会間接資本	42
V. 对外去來	50
第三章 南北韓産業構造의 展望	58
I. 産業構造의 改編	58
II. 에너지需給展望	62
III. 農水産物 需給展望	66



머 리 말

南北韓의 어떤 構造나 實態를 比較研究하는데 있어서 直面하는 어려움은 異質的인 體制에서 오는 概念上의 差異에, 더하여 北韓資料가 閉鎖되어 있는데다가 그나마 公表된 資料마저 信憑性이 稀薄하다는 事實이다. 이 研究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研究內容도 相當한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比較研究에 있어서는 個個 統計數値의 羅列을 통한 單純한 比較보다는 그 本質的 差異의 究明에 力點을 두었다. 아주 平面的인 敘述을 피하고 可及的이면 그 特徵이나 基本性格을 浮刻시키려고 試圖하였다.

우선 第一章에서는 日本의 植民地統治가 南北韓에 남긴 産業遺産에서 出發하여 6.25 動亂의 戰災와 그 後의 産業復旧, 그리고 本格的인 産業開發計劃의 實施에 있어서의 開發戰略과 成果를 考察한 다음, 近代産業의 代表的인 工業部門의 構成과 他産業部門間的 均衡에 關한 分析을 試圖하였다.

第二章에서는 南北韓의 賦存資源을 비롯하여 主要部門別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農林水産業, 對外貿易 및 外資導入 등에 걸쳐 比較考察하였다. 마지막으로 第三章에서는 앞으로 展開될 南北韓의 産業構造에 關하여 80年代에 있을 産業構造의 改編方向과 함께 에너지 및 農水産物需給을 中心으로 한 展望을 試圖함으로써 結論에 達하였다.



第一章 南北韓의 産業構造

I. 分断直後の 産業与件

1945年 8.15解放前까지 이 땅의 經濟는 日本의 植民地로서 獨立經濟체로서의 有機的 構成을 갖지 못하였다. 解放과 더불어 그 隸屬에서 벗어나고 日本과의 經濟的 紐帶는 断絶되고 말았다. 日本人的 企業家, 管理人 및 技術者들의 撤収가 뒤따랐다. 事態가 이렇게 되고 보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남기고 간 産業施設의 稼動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었음은 事理의 當然한 歸結이라 하겠다.

더우기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한 南北分断은 그 停滯狀態를 深化시켰다. 8.15當時 이 나라의 産業配置는 北쪽의 工業, 南쪽의 農業으로 불리울만큼 特徵적으로 区分되어 있었다. 北韓地域은 相對적으로 豊富한 地下資源과 水力資源을 利用한 金屬, 化學工業들이 發達한 反面 南韓地域은 주로 農業地帶로서 輕工業이 發達하고 있었다.

따라서 南韓地域에서 必要로 하는 電力, 中間財의 相當量을 北韓地域에서 供給받고 있었으며 北韓地域에서 不足한 食糧은 南韓地域에서 供給하는 등 産業面에서 有無相通하는 地域的 補完關係가 이루어져 있었다. 國土兩断에 따라 이런 補完關係가 깨어지면서 南韓의 産業은 北쪽의 電力 및 原料供給源을 잃게 됨으로써 北韓

보다 더 큰 打擊을 받게 되었다. 특히 北쪽으로부터의 送電中斷으로 말미암아 京仁工業地帶에서는 所要電力의 約 70%가 不足하여 工業生産의 極甚한 萎縮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南韓의 産業을 痲痺시킨 또 하나의 重大한 要因이 있다. 卽 解放後의 政治的, 社会的 混亂이 바로 그것이다. 日本의 敗戰과 더불어 그 統治權이 消滅되어 一時的으로 無政府狀態를 招來하였고 그후 美軍의 進駐에 따른 美軍政의 實施, 過渡政府의 出現 등이 있었으나, 歪曲된 自由의 亂舞, 民主主義에 대한 錯覺, 左右翼政党的 政爭, 罷業騷動 등으로 政治的, 社会的 混亂은 그 絶頂에 달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와 같은 不安한 狀況에서 企業家들은 長期的인 生産計劃을 세울 意慾을 잃고 있었으며 目前의 短期的인 商業利潤이나 投機를 追求하는데 及及하는 狀態였다.

1947 年에 實施된 한 調査結果¹⁾는 上記 諸要因에 의한 産業活動의 沈滯가 어느 程度였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1947 年에 南韓의 製造業 및 建設業 業体數는 約 4,500 個 業体로 줄어들어 1943 年의 10,065 個 業体の 半에도 未達하는 數이었다. 따라서 그 雇傭人員도 約 41% 程度 減少했다. 1948 年에 南韓의 製造業 生産은 1939 年 水準의 約 15%에 지나지 않았다. 部門別로는 農機具를 비롯한 機械生産이 約 70%, 化學品이 95%, 纖維製品이 60%, 食料品이 80%가량 줄었다.

註 1)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

이와 같이 減少된 製造業 生産額의 35%가량은 撤収한 日本人들로부터 引受받았던 政府管理業체에서 産出되었다. 政府管理業체數는 全體의 20%정도였지만 그 雇傭人員은 全勤勞者의 거의 過半數에 달했다.

한편 鉍業生産도 資金, 技術 및 資材不足 등 要因으로 休眠狀態에 빠져 있었다. 다만 重石鉍이 國際的 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活氣를 띠어 增産되어 가고 있었고 또한 無煙炭鉍의 開發이 國內需要에 副應하여 進陟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鉍工業生産의 激減은 財貨供給의 深刻한 缺乏을 招來하여 解放前後의 걸잡을 수 없었던 通貨量 膨脹과 相乘作用을 하여 惡性인플레이의 原因이 되었다. 그런데 農業生産에 있어서만은 쌀을 비롯한 糧穀과 菜蔬, 靑果生産이 大體로 解放前의 水準을 維持했으나 越南 및 帰還으로 인한 人口增加로 不足한 食糧은 外國으로부터 導入하였다.

한편 蘇聯軍이 進駐한 北緯 38度 以北의 北韓地域에서는 日本이 남기고 간 重要産業을 國有化하였다. 蘇聯軍에 의해 적지 않은 重要産業施設이 收奪당해 간데다가 管理人 및 技術者의 不足 때문에 이를 復旧, 整備하는데 近 5年의 期間을 所要하였다. 즉 1947년에 1次 1個年計劃, '48년에 2次 1個年計劃, 1949-50년에 1次 2個年計劃을 실시하였다. 그 結果 北韓의 工業生産은 1949년에 이르러 비로소 日帝末인 1944年의 水準을 回復하였다.

II. 6.25 動亂과 戰後産業復旧

6.25 動亂은 諸般 産業施設과 道路 橋梁 및 港灣施設들을 破壞하고 既存의 生産組織과 流通組織들이 무너짐에 따라 産業生産은 매우 低調하였다.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肥料의 供給등이 円滑치 못하는데다가 新品種의 開發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形便이어서 그 當時의 主宗産業인 農業部門의 生産마저 低調하였다. 韓國에 있어서 總財貨生産의 約 70%를 占하였던 農業生産, 特히 米穀이 1951-52 年에 平年作의 3分の 2에 不過하였다. 水産物の 漁獲 高도 動亂이 勃發한 1950 年에는 激減하였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從前의 生産実績을 回復하였다. 또 重要鉱物生産도 動亂勃發과 더불어 激減되었으나 重石만은 國際市場의 需要增大와 더불어 生産実績이 크게 늘어났다.

以上과 같이 産業의 生産活動이 低調한데다가 政府의 戰費調達로 因한 通貨膨脹으로 物価는 急騰하였다. 動亂中 美國을 비롯한 國際聯合의 緊急救護物資爲主의 援助가 계속되어 物資缺乏을 緩和하였으나 需要量을 充足시킬 정도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休戰以後 産業復旧事業은 主로 美國의 援助속에 시작되었다.

1954-59 年の 戰後復旧期間에 韓國이 美國등 友邦과 國際機構로부터 받은 援助의 總額은 27 億弗²⁾에 달하며 이는 우리 總投資

註 2) 韓國産業銀行, 經濟協力の 実績과 課題, 1971.

에 대하여 約 70%를 擔當해 준 結果가 된다. 즉 이 期間
中에 이루어진 總投資中 国内貯蓄으로 充當된 것은 30%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外國의 援助에 依存하였다. 國民의 所得水準이 絶
對적으로 낮은 當時의 狀況에서는 이럴 수 밖에는 없었다.

休戰後 美國의 對韓援助는 6.25 動亂으로 말미암아 荒廢化된
韓國産業의 復旧와 그 후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忠州
肥料工場, 仁川板硝子工場 및 聞慶시멘트工場의 建設은 이를 代表
하고 있다. 그 밖에 1百餘輛의 디젤機關車購入, 170 마일의 新
鐵道路線의 建設과 馬山, 三陟 및 唐人里 第2火力發電所의 建設도
들 수 있다.

이렇듯 美國援助가 韓國産業의 戰後復旧 및 發展에 미친 效果를
낮게 評價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莫大한 援助額에 비하여서는
눈에 띠 정도로 큰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批判되기도 한다.
元來 美國援助의 1次的인 目的이 共產侵略에 對抗하는 韓國의 防
衛支援에 두어졌기 때문에 産業開發은 2次的인 것이 되어 그 開
發效果를 減殺하게 된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休戰後
의 激甚한 인플레이션을 鎮靜시키기 위하여 우선 最終 消費財의 効率
的인 供給을 통해 短期安定에 注力한 나머지 援助에서 産業施設投
資쪽으로 돌린 資金의 比率이 낮았다. 이는 그 밖에도 援助事業
의 選定이 援助機關에 의하여 主管된데다가 우리 政府가 休戰後의
産業復旧 및 發展에 관한 綜合計劃을 미처 마련할 수 없었다는데
에도 基因한 結果였다.

한편 北韓에서는 그 共産傀儡集團 自身이 挑發한 6.25 動亂으로 因해 各種 産業施設과 그 稼動能力에 致命的 打撃을 받았다. 이에 關해 한 共産圈 資料³⁾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25 戰爭으로 말미암아 北韓에 있는 870 個의 工場 및 製作所가 破壞 당하고 大多數의 發電所와 炭鉍, 鉍山이 操業能力을 喪失하였다. 따라서 戰爭의 마지막 해인 1953 年の 鉍工業生産은 1949 年 水準과 比較할 때 64%까지 低下하였다. 特히 生産財를 生産하는 部門의 水準은 42%까지 低下하였다.

北傀는 6.25 動亂이 끝난 1954 年に 3 個年 經濟計劃을 樹立하고 戰亂으로 破壞된 産業施設을 復旧함으로써 産業生産을 1949 年の 水準으로 回復하는데 全力을 다하였다. 이 戰後復旧 3 個年計劃은 蘇聯, 中共 등 東歐 共産諸國으로부터의 經濟 및 技術援助와 勤勞者, 農民들의 努力을 土臺로 計劃目標가 달성되었다고 北傀는 發表하였다. 이 計劃期間을 통하여 거둔 成果로서는 破壞된 産業施設, 特히 重工業基地의 復旧建設 以外에 社會主義的 經濟形態를 強化한 것이었다. 事實上 이 計劃期間 중 가장 重要한 特徵的 變化의 하나로 社會主義制度의 強化에 따른 産業構造의 顯著한 變化를 들 수 있는데 이를 部門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⁴⁾

註 3) 蘇聯 科學アカ데미 附設 世界社會主義體制 經濟研究所, 北韓의 經濟-經濟的 基礎, 現在의 水準과 構造 -

4) 極東問題研究所刊, 北韓全書, 1980, p.310.

1949年의 鉍工業生産額 중 國營 및 協同團體의 生産比重은 90.7%였으나 1955년에는 98.3%로 높아졌으며 鉍工業部門의 民間生産은 주로 手工業的 日用品, 小規模의 精米所, 打綿業, 建材業에 限定되었다.

또한 農業總生産額 중에서 國營農牧場과 農機械賃耕所를 包含한 社會主義的 部分이 차지하는 比重은 '49년에는 3.2%에 불과했다. 그런데 1954-58년에 集團農場化를 施行함으로써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의 生産比重은 絶對的인 優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商業部門에 있어서도 '49-'55년에 國營 및 協同團體商業의 比重이 顯著히 提高되었다. 즉 小売商品流通額중에서 차지하는 그 比重은 56.5%에서 84.6%로 높아진 反面 個人商業은 15.4%로 萎縮되었다.

이 3個年 計劃期間中에는 北傀는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과 輕工業의 急速한 復旧發展을 圖謀한다는 基本政策에 따라 基本建設投資를 工業部門에 集中하여 大規模 工場의 復旧建設과 技術人力 養成에 注力하였다. 그 結果 工業部門生産은 1949年 水準에 接近하게 되었으며 工業部門에 從事하는 人口 構成比도 높아졌다. 따라서 計劃期間中 鉍工業部門은 異例的인 높은 成長을 示顯했으나 滿足할만한 것은 못되었다.⁵⁾ 왜냐하면 計劃의 初期年度에 있어서의 鉍工業生産의 成長率은 매우 높았으나 마지막 年度에 가서는

註 5) 蘇聯 科學學術院, 上揭書.

相對적으로 減退하는 推移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즉 年度別 鉅工業生産의 成長率을 보면 1954年에 51%, '55年에 52%, '56年에 27%로 半減되고 있다.

한편 農業部門에서는 穀物生産을 戰前水準으로 끌어 올리려는 當初 設定한 目標을 達成할 수가 없었다. 計劃目標 自体가 非現實的이라고 해서 3次에 걸쳐 修正했을 뿐만 아니라 計劃에 비해 37%나 더 많은 資金을 投入했음에도 不拘하고 実績은 결국 計劃에 未達하였다.

Ⅲ. 産業開發計劃과 成果

1962年부터 計劃적인 經濟開發에 着手한 韓國은 1次計劃期間에 年平均 7.9%, 2次計劃期間에 9.6%, 3次計劃期間에 9.8%로 成長을 加速化하면서 1962-79年에 9.2%의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自由經濟體制를 基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經濟開發計劃은 市場經濟를 바탕으로 하여 國民經濟가 나갈 方向을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誘導計劃(inductive plan)으로서의 性格에 그치고 있다. 즉 이 誘導計劃은 처음부터 計劃目標와 이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을 分明히 하고 이의 推進主体가 政府가 되는 共產國家의 統制計劃(control plan)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韓國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過程을 살펴 보면 1次計劃

(1962-66年)에서는 政府가 큰 役割을 担當하였다. 電力, 鐵道, 港灣, 通信 등 社会間接資本을 補充함으로써 開發基盤을 構築하는데 注力하였기 때문에 많은 部分이 政府에 의하여 推進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計劃內容 自体도 物量目標와 推進手段들이 明記되는 多分히 具體적인 物量計劃이었다. 그러나 漸次 經濟規模가 增大되고 複雜化되어 民間部門의 領域이 擴大되면서 計劃 自体의 性格이 보다 推想化되고 誘導計劃形態로 變貌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1次計劃期間에는 隘路部門의 打開을 위한 開發投資를 擴大하면서 한편으로는 輸出增大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도 注力하였다. 2次計劃期間(1967-71年)에는 電子工業, 石油化學工業의 開發을 통한 工業의 高度化와 輸出産業主導의 高度成長, 高米価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增大를 期하였다. 3次計劃期間(1972-76年)에는 劃期的인 造船施設의 補充, 綜合製鐵所의 完工, 石油化學工場의 建設擴大등 重化學工業의 發達을 통해 工業構造를 高度化시켰다. 또한 4大江流域開發을 비롯한 國土의 綜合開發에 着手하였으며 새 마을運動을 통한 農漁村의 環境改善과 所得增大로 農漁村近代化에 새로운 章을 열었다.

4次 計劃期間(1977-81年)에는 機械, 電子, 造船을 中心으로 하는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 産業의 比率을 높여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開發成果를 바탕으로 綜合적이고 体系的인 社会開發을 推進함으로써 衡平을 增進시키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

以上과 같이 우리 經濟는 20年間の 計劃的인 開發期間을 통하여 後進農業國으로부터 '新工業國' (new industrialized country) 으로 急速히 탈바꿈하였는데 이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工業化 戰略과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이 實效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는 開發初期에 計劃을 推進함에 있어서 自由企業의 原則을 土臺로 하되 基幹産業과 그 밖의 重要部門에 대해서는 政府가 이에 關与하거나 間接的으로 開發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政府는 社會間接資本을 補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造成하고 不足한 投資財源의 円滑한 調達을 위하여 外資導入體制를 確立하였으며 國際協力の 拡大와 함께 貿易面에서도 輸出伸張에 注力하면서 輸入自由化의 幅도 늘려 나가는 開放體制로 移行하였다.

이처럼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을 採択한 結果 韓國은 지난 60年代와 70年代에 걸쳐 劃期的인 輸出伸張을 記錄하였으며 輸出産業이 主導하는 高導成長을 採択하였다. 1960년에 3千2百萬弗에 불과했던 輸出額이 1979년에는 무려 147億弗에 달했다. 또한 輸出商品의 構成에 있어서도 工產品이 89%의 比率을 차지함으로써 工業化의 進展을 立証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原始形態의 閉鎖的인 自給自足 (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해 왔다. 1966年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經濟建設에 있어 가장 重要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宣言함으로써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確認하였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体制는 「各国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保해야 한다」는 스탈린式의 一國家社會主義体制를 모방한 것이다. 더욱이 1960年代 中盤부터 共產圈諸國으로부터의 援助가 中斷됨으로써 孤立主義는 한층 強化되었다.

北韓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全面的인 中央集中式 計劃經濟 내지 指令經濟体制를 運營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産業構造는 지금 까지 몇 차례의 經濟計劃을 거치는 동안에 形成된 것이다. 北韓은 1947年부터 經濟計劃을 實施하여 왔으나 完璧한 計劃經濟形態를 갖추게 된것은 1957-60年의 第1次 5個年計劃부터 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8年末 生産手段에 對한 社會主義化가 完成된 후부터 個人的 自由意思에 依拠한 生産活動이 一切 否認되고 「人民經濟運營에 勞動黨의 意思」가 組織的으로 作用하는 段階에 이르렀다.

1958年 以來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機構를 設置하고 自由市場이나 競爭價格을 否定한 土台위에서 生産財의 割當制, 消費財의 配給등 모든 經濟活動을 中央으로부터의 命令에 따르는 「指令經濟体制」로 轉換시켰다. 北韓의 中長期計劃에서는 社會總生産 및 主要産業別 生産의 增加, 社會總生産의 投資, 消費 및 軍事支出, 重要財貨의 生産目標 등이 提示된다. 그리고 이를 基礎로 하여 年次別計劃이 作成된다. 年次別計劃에서는 모든 財貨와 企業所에 對한 生産活動目標와 生産指令이 包含되며, 資源의 用途別 配分이 明示된다.

北韓의 産業開發計劃은 그 經濟發達過程에 따라 大別해 보면 다음의 3段階로 区分된다. 즉 1945-60年, 1961-70年, 그리고 1971年 以後의 3段階이다.

第1段階인 1945-60年은 共產傀儡政權의 樹立, 6.25 動亂, 戰後 復旧를 거쳐 計劃經濟體制를 強化한 期間이다. 그동안 國際環境은 소위 中蘇蜜月時代로 物心兩面에서 中共 및 蘇聯의 支援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第2段階인 1961-70年은 中蘇對立의 余勢를 받아 前半期는 蘇聯과 對立, 後半期는 中共과 對立하는 등 共產圈의 兩大國紛爭에 휘말려 들어간 期間이었다. 특히 그 동안 쿠바危機, 베트남戰의 影響을 받아 軍事力 增強에 광분한 결과 經濟建設은 順調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強力한 社會主義工業國家로 成長했다」고 1970年 11月의 第5次 勞動黨大會에서 宣言하는 欺瞞術을 폈다.

第3段階인 1970年 以後는 北韓이 中蘇對立의 틈바구니에서 所謂 「主體思想」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同時에 第3世界에 對한 外交를 積極적으로 推進하는 한편 西方經濟와의 接觸을 試圖한 새로운 時代가 된다. 특히 日本이나 西歐諸國과 交流함으로써 先進設備와 技術을 導入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巴야흐로 技術革命의 推進時代가 된다.

그러나 西方諸國과의 接觸은 近代的 工場建設의 代價로서 對外債務 累積과 對外債務償還 不履行이라는 뜻밖의 事態를 招來하여

마침내 北韓經濟의 脆弱性을 드러내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1971年부터 시작된 6個年計劃은 '75年 8月末로 事實上 中斷되었으며 約 2年半의 絶衝期를 두고 '78년부터 第2次 7個年計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6個年計劃期間中에 造船, 機械, 發電所 등 大規模建設과 最初의 石油化学工場建設이 있었지만 그 裏面에는 各 産業部門間的 不均衡, 科学技術革新의 遲滯, 生産品の 높은 코스트 등 여러가지 問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컨대 北韓은 戰後復旧 3個年計劃과 이에 뒤이은 5個年計劃에서는 異例적으로 높은 成長을 시현했으나 그 後의 計劃들은 그 成果가 基本目標에 未達하여 蹉跌을 빚었다. 그런데 戰後의 異例적으로 높은 成長率은 6.25 動亂의 戰災로 인해 그 出發水準이 極히 낮았다는 것으로 說明이 된다.⁶⁾ 第1次 7個年計劃에서는 鉍工業은 그 目標의 72.2%, 農業은 57-67%, 水産業은 58-70% 밖에는 達成하지 못했으며 同計劃의 3年 延長期間에는 石炭과 電力만이 目標을 達成했다. 6個年計劃에서도 鉄鋼, 시멘트는 目標未達로 1年間 延長하였다.⁷⁾

註 6) 蘇聯 科学아카데미, 上掲書.

7) 國際關係共同研究所, 北朝鮮의 工業<1>, 1979.

IV. 産業部門間 均衡 및 部門內 構成

韓國의 工業化過程을 보면 輸入代替나 輸出에 關聯된 輕工業部門에서 出發하여 重化學工業이 漸次 發達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輕工業은 投下資本의 懷妊期間이 짧고 勞動集約的이며 技術習得이 容易하여 開發初期의 資本不足, 過剩人力, 技術落後 등의 條件에 비추어 當時의 實情에 알맞는 工業部門이었다. 더욱기 輕工業은 輸入代替 或은 輸出을 통해 國際收支改善에 寄與하였는데 纖維, 合板, 신발류는 한동안 韓國의 輸出을 代表하는 工業品들이었다.

開發初期에 輕工業部門의 開發은 短期的 生産擴大 및 輸出增大에 크게 寄與하였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提起되었다. 첫째, 原料 및 中間財 등의 對外依存度가 深化되어 國際的인 資源波動이 일어난 '70年代 初盤의 狀況下에서 是 困難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둘째, 값싼 勞動力을 土臺로 한 比較優位는 우리들 뒤쫓고 있는 後發開發途上國들에 의하여 威脅을 받게 되었다. 셋째, 輸出規模가 10億弗(1970年)을 넘어서자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이 要請되었다. 즉 輕工業製品爲主의 輸出體制는 限界를 나타내기 始作하였다. 따라서 60年代에 重點開發되었던 纖維, 合板, 新발류 등의 輕工業은 高級化로 계속 發展시키면서 보다 技術集約的인 새로운 産業의 開發이 要請되

었다.

우리나라의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重化学工業을 建設하여 工業의 高級化를 期한다는 것이 그 重点目標의 하나로 登場하였다. 이를 위해 所謂 重化学工業開發計劃이라는 것을 비로소 作成하였다. 이때 重点 開發하기로 決定한 重化学 基幹産業은 6個部門이었다. 鐵鋼, 機械, 自動車, 電子, 造船, 石油化学 등이 이에 屬한다. 重化学工業의 開發은 輕工業部門에 比하여 一般的으로 資本, 技術이 더 要請되고 市場 등에서 危險負擔이 더 크게된다. 따라서 開發初期의 制限된 資本, 落後된 技術水準 및 不確實한 市場展望 등을 가지고는 이 部門의 開發을 着手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0年代 10年間의 産業開發經驗을 土臺로 하여 工業構造의 高級化를 위한 重化学工業의 開發戰略을 70年代初에 採択한 것은 時宜에 맞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開發戰略을 採択한 結果 그 동안 우리의 産業構績은 크게 改善되었다. 1961년에 國民總生産에 對한 農林水産業의 比率은 40%, 工業의 比率이 13%로 後進國의 典型的인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1979년에는 1979년에는 國民總生産에 對한 農林 水産業의 比率은 21%, 鉍工業의 比率은 28%,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의

比率은 51%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우기 1970年代에 들어서는 重化学工業의 發達에 따라 工業構造도 急速히 改善되어 갔다.

重化学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은 1970年의 40% 對 60%에서 1979년에는 51% 對 49%로 높아 졌다.

北韓의 産業은 重化学 優先의 政策基調下에서 軍需聯関工業의 發達에 偏重한 結果 여러 産業部門 사이에 不均衡이 擴大되어 이에 따라 마침내 成長을 制約하는 隘路部門이 發生하고 있다. 北韓의 年平均 總投資額 가운데서 鉍工業部門에 對한 投資額이 차지하는 比重은 戰後復旧 3個年計劃(1954-56年)에서는 49.6%, 第1次 5個年計劃(1957-60年)에서는 51.3%, 10個年計劃(1961-70年, 1次 7個年計劃 및 그 3年延長)에서는 60%에 달했다. 이 같은 鉍工業 投資額의 構成을 보면 重工業이 圧倒的인 比重을 차지했다. 重工業과 輕工業사이의 相對的 比率은 1954-56년에는 81.1% 對 18.9%, 1957-60년에는 82.6% 對 17.4%였다.

60年代 前半期에 北傀는 7個年計劃의 基本課題의 하나로 「住民生活의 向上」을 내세워 輕工業에 對한 關心을 가졌다. 이 時期에 輕工業에 對한 年平均 投資比率은 28%에까지 달했으나

60年代 後半期에는 또 다시 15%로 떨어졌다. 이것은 北傀가 60年代에 내걸었던 이른바 「經濟와 軍事建設의 併進路線」과 관련되어 있다. 즉 그 併進策으로 말미암아 軍事支出이 大幅 增大되고 보니 主로 輕工業分野에 돌아 갈 投資의 몫을 減少시켜 왔다.⁸⁾ 70年代의 6個年計劃(1971-76年)에서는 輕工業이 鉅工業投資에서 占하는 몫은 17%로 微微하나마 늘어났다.

또한 軍需産業에 置重한 重工業 優先主義路線에 따라 社会間接 資本에서 隘路部門이 發生하고 있다. 특히 交通, 運輸部門에 對한 未洽한 投資와 鐵道偏重의 輸送構造로 인한 輸送難은 深化되어 經 經成長까지도 沮害하고 있다. 地形上 北韓은 東西海岸사이의 連續 輸送이 불가능한데다가 道路輸送도 발달하지 않음으로써 輸送의 鐵 道依存度가 86%에 달하고 있다. 貨物輸送의 경우 韓國에서는 鐵道가 17%, 道路가 50%, 海運이 33%로 分担되어 있으나 北韓에서는 鐵道가 90%이상을 담당하여 道路나 海運은 鐵道の 補 助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

더우기 北韓은 東西海岸地帶를 따라 産業立地가 이루어져 沿岸輸 送이 重要함에 도 不拘하고 道路 및 海運輸送이 東西沿岸을 연결시 켜 주지 못함으로써 鐵道輸送에 過度하게 依存하게 된 것이다.

註8) 蘇聯 科學아카데미, 上揭書.

그런데 鐵道建設에 있어서 山岳과 河川을 克服해야 하는 地形上의 困難과 그 建設期間의 長期性은 投資效率을 낮추고 있다. 北韓의 鐵道는 41% 정도가 電鐵化되어 있다. 특히 70年代의 6個年計劃 (1971-76年)의 수행 과정에서 輸送問題가 現實的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東西의 工業地帶를 連結하는 鐵道建設과 電鐵化에 注力하였다.

第二章 南北韓産業의 實態

I. 農 業

1. 耕地面積과 營農形態

分斷되어 있는 韓半島의 國土는 그 面積에 있어서 韓國이 44.7%인 98,799㎢, 北韓은 55.3%인 122,357㎢를 각각 차지한다. 그러나 耕地利用面에서는 韓國은 北韓에 비해 平野地帶가 많기 때문에 耕地利用率이 높아 耕地面積도 넓다.

1979年 現在 韓國의 耕地面積은 國土의 22%에 해당하는 2,207千ha로 北韓의 2,609千ha(耕地率 16.9%)에 비하여 138千ha나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耕地面積의 隔差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점차 縮小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韓國이 經濟發展에 따른 都市化 및 工業化進展으로 農耕地가 工場敷地, 道路建設, 都市擴張 등에 蚕食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耕地面積을 논과 밭으로 區分해 보면 韓國은 논이 全體耕地面積의 59%인 1,302千ha, 밭이 41%인 905千ha이나 北韓은 밭이 1,439千ha로 그 70%를 차지하고 있고 논은 630千ha로 30%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논面積은 韓國이 北韓의 2.1배에 달하고 있는 反面, 밭面積은 北韓이 韓國의 1.6배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注目되는것은 北韓의 耕地面積에서 논이 차지하는 比率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北韓이 不足한 쌀生産을 늘리기 위하

여 相對的으로 豐富한 水資源을 이용하여 灌溉施設을 擴充함으로써 밭을 논으로 轉換해 온데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農業人口에 있어서는 1979年 現在 韓國이 10,883千名으로 北韓의 7,130千名에 비하여 1.5倍에 달하고 있다. 耕地面積의 隔差가 7%에 지나지 않은데도 農業人口의 隔差가 53%에 이르고 있음은 韓國이 相對的으로 勞動集約도가 높은 農事에 크게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韓國農業의 零細性을 意味하기도 한다. 실제 韓國의 1戶當 耕地面積은 1.02 ha로 北韓의 1.6 ha에 비해 좁다.

그런데 韓國은 工業化의 進展으로 農業人口의 比重이 점차 減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62年에 52%에 이르던 農業人口의 比重이 1979年에는 29%로 낮아지고 있다. 反面에 北韓에서는 深刻한 農業勞動人力の 不足現象에도 불구하고 農業人口 構成比는 42%에 달하고 있다.

營農形態에서 北韓은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취하고 있다. 1946年의 所謂 「土地改革」에 의해 無償沒收의 再分配를 실시하여 1953年까지 형식적으로는 農地의 私有化形態를 취하였다. 그러나 1954~58年에 集團農場化를 強行함으로써 現在 約 3千7百個 協同農場과 國費農場 및 牧場이 있다. 協同農場의 作業體制는 管理委員會 밑에 作業班, 分組가 있다. 1965년부터는 이른바 「分組都給制」라는 一種의 請負制를 실시하여 15~20名으로 構成된 分組의 責任下에 모든 生産活動을 組織, 執

南北韓 農業資源 (1979年)

	單位	韓國	北韓
耕地面積	千 ha	2,207	2,069
畝面積	千 ha	1,302	630
田面積	千 ha	905	1,439
農家人口	千人	10,883	7,130
農家人口/總人口	%	28.9	42.0
戶当耕地面積	ha	1.02	1.6

資料：韓國；農水產部，北韓；國土統一院

行하는 方式으로 되어 있다.

2. 農業投資 및 生産基盤

韓國은 工業化優先의 成長을 追求해오는 過程에서 農業投資에 대한 比重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農水産業 部門의 生産이 全體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60年代에 36%, 70年代에 25% 였는데 대해 總投資에서 이 部門投資가 차지하는 比率은 9% 内外에 불과하다.

한편 北韓은 1960年代에 들어와 10年間に 걸친 7個年計劃期間에 基本建設投資額 107億원 가운데서 農林水産部門에 19.7% 에 해당되는 29億원을 投資했으나 國民總生産에서 農業生産이 차

지하는 比重은 5%에 불과했다. 70年代의 新 6 個年計劃期間중에도 農林水産部門에 대해 全投資額의 20%를 넘는 投資를 하였으나 生産額의 比重은 여전히 5%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⁹⁾

이와 같은 事實은 北韓의 農業投資의 限界效率이 아주 낮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北韓의 營農은 韓國에 비해 自然條件이 不利한데다가 官僚化되고 硬值화된 集團營農體制로 인한 農民들의 增産意慾이 減退한데 主로 基因하고 있다.

生産基盤을 比較해 보면 먼저 水利安全率에 있어서 韓國이 87% (1979年)이고 北韓은 91%¹⁰⁾ (1976年)로 北韓이 韓國에 비해 多少 優位에 있다. 農業의 機械化現象을 보면 韓國은 70年代 初盤까지만 하더라도 農業部門의 過剩勞動力으로 因하여 機械化의 절실한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으나 70年代 中盤以後 계속되는 絶對農業人口의 減少와 賃金上昇, 重工業部門의 發展등에 힘입어 農業機械化가 急速히 進展되고 있다. 한편 北韓은 集團農場의 有利한 條件을 갖춘데다가 勞動力不足現象을 克服하기 위해 50年代後半부터 機械化에 着手하여 量的으로는 相当水準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南北韓의 農業機械 保有 狀況을 보면 1979년에 韓國이 耕耘機 236千臺, 트랙터 2千臺, 動力移秧機 244百臺를 保有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1977년에 트랙터 88千臺와 動力移秧機 30千

註 9)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象比較, 1979, p. 31.

10) 海外經濟研究所, 南北韓經濟力の 現況과 展望比較, 1979, p. 17.

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그러나 北韓의 農機械가 주로 트랙터를 中心으로 劃一的인 데다가 故障率이 잦아 利用率이 낮다. 이에 반해 韓國의 農機械는 耕地規模등에 따라 多樣化되어 있는 까닭에 實際 機械化의 效率面에서는 별로 隔差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최근 韓國은 農林勞動力 不足現象이 일어남에 따라 機械化가 急速度로 進展 되는 점을 考慮하면 量的인 面에서도 곧 北韓을 앞지를 것으로 展望된다.

化學肥料의 供給實態를 보면 韓國은 1967年까지 相當量을 輸入에 依存하였으나 1968年부터는 自給體系를 갖추게 되었으며 現在 年間 100萬톤가량을 輸出하고 있다. 1979年의 韓國의 施肥量은 成分含量基準으로 町步當 388 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町步當 244 kg으로 크게 뒤지고 있다. 특히 成分別 構成에 있어서 韓國은 窒素, 磷酸, 칼리質 比率이 55:27:18로 比較的 均衡된 體系를 갖추고 있지만 北韓은 生産體系가 磷肥 中心으로 되어 있고 加里肥料는 技術的인 問題로 對外輸入에 依存함으로써 3要素肥料의 均衡的인 施肥에 많은 隘路를 겪고 있다.

育種理論과 技術面에서는 韓國은 이미 國際水準에 달하여 統一, 維新, 水原벼 系統의 多收穫品種의 栽培가 一般化됨으로써 10 a當 쌀 生産量이 78年의 경우 471 kg, 79년에는 453 kg에 달하고 있다.

註 11) 海外問題研究所, 上揭書, p.20.

그러나 北韓은 育種理論에 있어 日帝때의 理論과 蘇聯 및 中共學者들의 理論 등이 3元化되어 昏迷狀態에 있고 營農技術도 韓國水準에 未達하여 10 a 당 쌀生産量은 370 kg水準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北韓의 쌀의 增産을 圖謀하기 위해 韓國의 多收穫品種의 벼를 東南亞에서 求得하여 대대적인 研究栽培를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食糧作物生産實績

韓國의 食糧生産은 植付面積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營農方式의 科學化와 多收穫新品種의 開發에 힘입어 꾸준한 增加를 보여왔다.

1979년에 食糧作物生産은 米穀 5,565千톤, 麥類와 豆類 및 雜穀類를 包含하 穀物生産은 7,611千톤이며 薯類를 합한 食糧作物의 總生産量은 8,112千톤에 이르고 있다.

北韓은 生産推計를 알곡으로 하는데 1979年中 9百萬톤을 生産하였다고 發表하였다. 그러나 同生産推計는 薯類까지를 包含하고 있고 더우기 立苗狀態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韓國과 比較하기 위해서 立毛減耗率과 精米率 등을 勘案해야 한다. 이와같은 要素들을 考慮하여 精穀概念으로 본 北韓의 1979年中 生産量은 糧物 4,574千톤, 薯類 223千톤으로 推定되는데 이는 同年 韓國의 生産實績보다 各各 40%, 55%가 적은 것이다.

食糧作物生産推移

單位：精穀基準千噸

區分 年度	韓 國			北 韓			南：北
	穀 物	薯 類	合 計	穀 物	薯 類	合 計	
1970	6,160	783	6,943	4,000	306	4,306	1.6 : 1
1971	6,085	707	6,692	4,069	269	4,338	1.5 : 1
1972	6,069	674	6,743	3,780	256	4,036	1.7 : 1
1973	6,148	611	6,759	4,140	243	4,383	1.5 : 1
1974	7,464	543	6,921	4,172	289	4,461	1.6 : 1
1975	6,932	740	7,672	4,213	215	4,428	1.7 : 1
1976	7,535	671	8,206	4,273	208	4,481	1.8 : 1
1977	7,402	603	8,005	4,540	221	4,761	1.7 : 1
1978	7,663	565	8,228	4,357	212	4,569	1.8 : 1
1979	7,611	501	8,112	4,574	223	4,797	1.7 : 1

資料：韓國：農水産部，北韓：國土統一院

II. 賦存資源 및 鉍業

鉍物資源의 分布에 있어서 北韓은 韓國에 비하여 훨씬 有利한 位置에 있다. 1979年 現在 南北韓의 主要鉍物資源의 埋藏量과 그 生産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石炭은 韓國이 15億톤인데 반해 北韓은 120億톤으로 89.2%가 北韓에 偏在되어 있으며 生産量은 韓國이 18百萬톤으로 北韓의 500百萬톤에 비해 그 36%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工業用으로 쓰이는 有煙炭의 98%가 北韓에 偏在되어 있고 이는 豊富한 水資源과 더불어 北韓의 電力生産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鐵鉍石은 韓國이 121百萬톤인데 반해 北韓은 3,000百萬톤으로 24.7배의 埋藏量을 가지고 있으며 生産量도 韓國이 639千톤 北韓이 7,350千톤으로 北韓이 韓國의 11.5배에 달한다.

重石 및 銅鉍石도 北韓이 韓國보다 1.5배程度の 埋藏量을 보이고 있으며 生産量도 韓國을 앞지른다. “마그네사이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生産되지 않고 北韓에서만 65億톤의 埋藏量을 가지고 있으나 그 生産量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金, 銀을 비롯한 그 밖의 鉍物資源에 있어서도 망간만이 埋藏量에서 韓國이 優勢를 보일 뿐 대부분의 鉍物資源이 埋藏量이나 生産量에서 北韓이 훨씬 優勢한 立場에 있다.

北韓은 이처럼 相對的으로 豊富한 鉍物資源을 開發하여 輸出의 主宗品目으로 삼아왔으며 最近에는 이를 半製品化하여 輸出함으로써 外貨稼得率을 높이는데 注力하고 있다. 北韓의 豊富한 鉍物資源賦存은 동시에 金屬工業發展에 相對的으로 有利한 與件을 造成하였으며 특히 日本統治下에서 北韓地域에 偏在된 重工業施設과 함께 일찍부터 重化學工業에 置重하게 된 原因이 되고 있다.

한편 韓國은 빈약한 賦存資源與件으로 말미암아 資源의 海外依
存도가 높으며 重化學工業의 開發에 따른 所要資源의 增大와 함
께 더욱 深化되고 있다.

1973年 1次 油類波動以來 계속 擴大傾向을 보이고 있는 資
源 내소날리증에 비추어 資源의 安定的인 供給이라는 側面에서
韓國은 長期的으로는 産業構造를 資源이 덜 드는 技術集約的인
産業體制로의 轉換을 模索하는 한편 資源의 開發輸入體制를 強化
하는 方向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主要鉍物資源의 埋藏量과 生産量 (1979)

單位：千%

區 分	埋 藏 量		生 産 量				
	韓 國	北 韓	南：北	韓 國	北 韓	南：北	
金 屬 鉍 物	鐵鉍石	121,368	3,000,000	1 : 24.7	639	7,350	1 : 11.5
	망간石	357	147	2.4 : 1	0.035	n.a.	
	重石	12,749	19,123	1 : 1.5	4.89	5.13	1 : 1
	니켈	64	256	1 : 4.0			
	金	1,180	2,340	1 : 2.0	7.49 kg	9,200 kg	1 : 12.3
	銀	6,948	15,016	1 : 2.2	0.071	0.14	1 : 2.0
	銅	11,243	16,070	1 : 1.5	3.16	40	1 : 12.7
	重鉛	8,202	8,000	1 : 1	125	162	1 : 1.3
	鉛	2,585	4,790	1 : 0.9	22.16	n.a.	
	마그네사이트	-	6,500,000		-	3,200	
非金屬鉍物	石炭石	4,199,300	10,000,000	1 : 2.4			
	모나자이트	20	46	1 : 2.3			
	無煙炭	1,450,449	11,741,000	1 : 8.1	18,208	50,000	
	有煙炭	5,000	245,000	1 : 49.0	-		

資料：韓國：動力資源部，北韓：國土統一院

Ⅲ. 製 造 業

韓國은 1960年代初까지는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注力하였으며 이후 國內의 豊富한 勞動力과 外資 등을 바탕으로 輕工業을 輸出産業化하는데 성공함으로써 輕工業部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시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이룩된 輕工業發展을 바탕으로 重化學工業을 開發하여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는 대조적인 開發形態를 취하고 있다. 北韓은 開發初期부터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建設에 注力하고 輕工業은 基本的인 生活需要部門만 除外하고는 극히 抑制하여 왔다. 이와같은 開發路線은 北韓의 賦存資源與件과 또한 軍事力의 強化라는 目的이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經濟體制의 目標인 「人民生活의 向上」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産業間의 體係的인 發展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라는 面에 비추어 볼 때 극히 非能率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重化學工業은 産業間의 緊密한 聯繫體系와 高度의 技術水準이 前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條件이 充足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發展에 制約이 加해지고 있다.

1. 金屬工業

解放前에 約 60 萬톤의 製鐵 및 16 萬톤의 製鋼施設의 90%이

상이 北韓에 偏在하였으며 1970年以前까지도 生産能力과 生産量 등에 있어 상당한 優位를 占하였다. 이것은 北韓地域이 資源 및 工業立地條件이 鐵鋼工業에 有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은 1973年 浦項綜合製鐵의 준공으로 近代的인 鐵鋼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후 꾸준한 設備擴張工事로 生産能力을 擴充하였다. 이에 따라 1979年 現在 製鐵能力 5,382千噸, (115千噸 合金鐵能力포함) 製鋼能力 8,735千噸 壓延能力 7,704千噸을 保有함으로써 北韓의 生産能力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1979년에는 特殊鋼生産施設이 稼動되어 製品의 高級化를 기하고 있다. 韓國은 現在 製鋼能力 長期目標를 2,860萬噸으로 세우고 世界 6位의 鐵鋼工業國으로 指向하고 있다.

原料需給面에서 볼 때 北韓은 瀝靑炭만을 中共과 蘇聯에서 輸入할 뿐 鐵鉍石과 石灰石을 全量 自給하고 있다. 반면 韓國은 鐵鉍石을 비롯하여 年間 250萬噸에 이르는 古鐵 瀝靑炭 등을 모두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技術水準에서 韓國의 鐵鋼工業은 北韓보다 優位에 있다. 浦鐵의 最新設備導入을 중심으로 꾸준한 技術開發을 推進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向上시켜 온 데 비하여 北韓은 既存設備를 중심으로 擴張에 注力해 왔다. 따라서 北韓은 現代裝備 및 先進技術의 未備로 말미아마 高級特殊鋼의 生産에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製鐵部門은 韓國에 비해 優勢하며 특히 特殊鋼은 오랜 操業經驗으로 상당한 水準의 技術을 축적하고 있으며 鐵鋼素材의

基本的인 需要를 充足하고 있다.

한편 非鐵金屬의 경우 北韓은 鉛, 亜鉛등을 輸出戰略品目化하고 있고 또한 軍需産業에 필수적인 重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增産에 注力해 왔다. 1976 年에 北韓의 非鐵金屬 生産能力은 銅 50 千톤, 鉛 67 千톤, 아연 138 千톤, 알루미늄 1.7 千톤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原料는 銅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自體資源의 開發로 調達되고 있다.¹²⁾

韓國은 1970 年代後半에 重化學工業建設의 本格的인 推進과 더불어 급격히 增大하는 非鐵金屬需要에 對處하기 위하여 慶南 溫山에 非鐵金屬團地를 造成하고 銅, 아연, 鉛, 알루미늄의 大單位 製鍊所와 관련 2차 加工施設을 建設하기 始作하여 78 年 年産 53 千톤의 亜鉛製鍊所가 完工되었다. 이들 製鍊所의 稼動으로 1979 年現在 韓國은 電氣銅 161 千톤, 鉛 11 千톤, 亜鉛 83.2 千톤, 알루미늄 17.5 千톤의 非鐵金屬生産能力을 갖추고 電氣銅과 알루미늄에서 北韓의 生産能力을 앞지르게 되었다.

註 12) 海外經濟研究所, 上掲書, p. 32 ~ 33.

金屬工業關聯指標 (1979 年)

單位：千噸

區 分	韓 國	北 韓	南 : 北
製鐵能力	5,382	3,220	1.7 : 1
製鋼能力	8,735	4,000	2.2 : 1
壓延能力	7,704	1,980	3.9 : 1
銅生產能力	161	50 ¹⁾	3.2 : 1
鉛生產能力	11	67 ¹⁾	1 : 6.1
銻鉛生產能力	83.2	138 ¹⁾	1 : 1.7
알루미늄生產能力	17.5	1.7 ¹⁾	10.3 : 1

資料：韓國：商工部，北韓：國土統一院，海外經濟研究所

2.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北韓의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고 開發해 온 部門이다. 따라서 韓國이 重化學工業을 본격적으로 開發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北韓이 거의 大部分의 分野에서 壓倒的인 優位를 占하였다. 그러나 最近 韓國의 重化學工業 發達이 本軌道에 올라서게 됨에 따라 現在는 그 優劣이 部門別로 엇갈리고 있다.

註 1) 1976 年值임.

먼저 工作機械의 경우 北韓은 일찍부터 機械工業 중에서도 가장 發展시킨 分野인데 1979 年에 年間 30 千臺의 工作機械를 生産함으로써 韓國의 13 千臺에 2.3 倍에 달하고 있다. 또한 韓國은 機種面에서 旋盤不削盤, 밀링盤등의 小型 低級의 汎用性機械가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은 數値制禦旋盤 20 M 旋盤 18 M 터닝반 40 톤/M 型 鍛造「아치」등을 生産하여 技術적으로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農機械生産에서는 北韓이 트랙터中心體制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韓國은 耕耘機中心이며 78 年부터 우리 農村實情에 맞는 小型트랙터를 開發 生産하고 있다. 生産能力은 1978 年 現在 韓國이 耕耘機 90 千臺, 脫穀機 30 千臺, 揚水機 48 千臺인데 비하여 北韓은 트랙터 23,520 臺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여타 農機械 生産能力은 發表되지 않고 있다.

一般産業用機械에 있어서는 紡績 紡織機를 비롯한 織維機械生産과 各種建設機械, 化學用 플랜트 등에서 韓國이 北韓에 비하여 生産能力과 技術的인 面에서 優位를 보이고 있으며 鉸山機械, 發電設備 등에서는 北韓이 優位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輸送用機械에 있어서는 韓國이 自動車와 船舶을 輸送戰略生産으로 育成함에 따라 自動車生産能力이 73 年の 63 千臺에서 79 年에는 335 千臺로 造船能力도 250 千톤에서 2,800 千톤으로 급속한 伸張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1970 年 約 1 萬臺정도의 自動車生産能力에서 현재 3 萬臺정도의 生産水準에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특히 輸送難打開을 위한 大型車生産에 주력하여 乘用車 및 小型車生産은 韓國과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劣勢에 있다. 또한 造船能力도 韓國의 9%에 不過한 250千톤 정도이며 最大船建造도 2萬 DW톤으로 韓國의 26萬 DW톤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電子工業은 最近 韓國이 특히 비약적인 發展을 이룩한 分野이다. 当初 輸入代替産業으로 시작된 韓國의 電子工業은 勞動集約的이면서도 同時에 技術集約的이라는 特性 때문에 最近 輸出産業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1979년에는 總輸出額의 1割에 해당하는 15億달러를 輸出한 바 있다. 1979年中 生産實績을 보면 TV受像機 5,867千臺, 라디오 3,772千臺, 錄音機 10,038千臺 電氣冷藏庫 1,445千臺 등과 이밖에 通信機器를 비롯한 各種 現代化 産業用機器를 生産하고 있다.

이에 반해 北韓은 眞空管式 舊型 라디오를, 겨우 國內需要에 充當할 정도이며 TV受像機는 年間 103萬臺를 組立生産하며 小型

機械工業 關聯指標 (1979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南:北
工作機械生産	千 臺	13	30	1:2.3
自動車生産能力	千 臺	335	30	11.2: 1
造船能力	千 G/M	2,800	250	11.2: 1
TV受像機生産	千 臺	5,867	100	58.7: 1

資料: 韓國; 商工部, 北韓; 國土統一院.

冷藏庫를 組立하는 段階의 脆弱한 生産基盤을 갖고 있다. 産業用 電子機器도 극히 精密度가 낮은 低水準의 通信機器가 生産되는 정도이다. 그밖에 電子計算機, 電話交換機 등 現代的 産業用 機器의 生産은 없으며 대부분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要컨대 北韓의 電子工業은 先進技術의 導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 工業分野 중에서 가장 落後된 部門이다.

以上을 比較해 볼 때 北韓은 工作機械와 動力機械에서 韓國보다 앞서 있으며 韓國은 輸送機械와 電子 등에서 현저한 優位에 있다.

北韓은 앞으로 西方諸國의 技術設備의 導入에 의해 機械工業의 發展을 더욱 강력히 推進해 나갈 것으로 豫想되지만 여기에는 老朽設備代替에 따른 龐大한 資本所要, 外債의 累積 등의 問題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韓國은 最近 機械工業의 生産能力과 技術水準이 하루가 다르게 變化하고 있으며 政府도 機械工業의 輸出産業化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멀지않아 全 機械部門에 걸쳐 北韓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化學工業

金屬工業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化學工業 역시 國土의 分断과 함께 北韓이 絶對優位에서 出發한 部門이었으나 현재는 韓國이 모든 化學工業分野에서 比較가 안될 만큼 北韓보다 앞서고 있다. 특히 北韓의 化學工業이 石炭化學工業體系로 발달했기

때문에 品種이 單調롭고 品質도 低劣한데 대해 韓國은 石油化學工業體系로 발달하여 옴으로써 品種이 多樣하고 優殊한 品質을 갖고 있다.

部門別 現況을 比較하면 肥料生産에 있어서 韓國은 1979年 年間 3,128千톤의 化學肥料를 生産하여 年間 100萬톤이상을 輸出하고 있으며 肥料에 있어서도 最新設備를 中心으로 性分含量이 높은 尿素肥料가 全體生産의 38%를 차지한다. 北韓은 正確한 生産量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總生産量 300萬톤 性分含量 59萬톤정도로 韓國의 약 3분의 1 水準인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北韓의 肥料性分含量이 이처럼 低率인 이유는 既存老朽施設을 根幹으로 性分含量이 낮은 硫安과 磷肥料중심의 生産體系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農藥生産은 實量基準으로 韓國이 208千톤으로 北韓의 24千톤에 비해 8.7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種類도 훨씬 多樣하다.

合成樹脂의 경우 韓國은 그동안 이룩된 石油化學工業을 基礎로 年間 21千톤의 PVC生産과 함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ABS"등 年間 約 523千톤의 다양한 品種을 生産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生産能力은 앞으로 蔚山 및 麗川地區의 石油化學工團의 擴充과 함께 加速적으로 擴大될 展望이다. 北韓은 지난 7個年計劃期間中 6~7萬톤의 生産을 目標로 하고 6個年計劃期間中에 이를 다시 3倍로 提高시킬 것이라고 發表하였으나 推進은 극히 不振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9年 現

재 北韓은 塩化비닐 石炭酸樹脂 중심의 石炭化學系統의 合成樹脂를 100千톤정도 生産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安州地域에 年間「폴리에틸렌」 生産能力 2.8 千톤 규모의 石油化學基地를 建設 중에 있다.

石油精製는 不足한 에너지資源下에서 급속히 增大되는 에너지需要에 對處하기 위해 韓國이 일찍부터 開發을 시작한 分野로 1964年 蔚山精油工場의 建設을 필두로 湖南精油 경인에너지 등의 精油工場을 계속 建設함으로써 1979年末현재 總 580千 BPSD의 精油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이에 대해 北韓은 1973年과 78年에 각각 雄基精油工場과 白馬里精油工場을 建設함으로써 현재 67千 BPSD의 精油能力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같이 貧弱한 精油能力으로 인해 石油化學工業은 未開拓段階에 머물러 있다.

시멘트工業 역시 韓國이 優位를 지키고 있는 分野이다. 1971年까지만 하더라도 663萬톤에 不過하던 韓國의 시멘트生産能力은 經濟開發에 따른 活潑한 國內建設活動과 海外建設의 急伸張에 힘입어 1979년에는 2,040萬톤으로 급속히 擴大되었으며 生産量도 687萬톤에서 1,641萬톤으로 늘어났다. 北韓도 그동안 既存 시멘트工場 補強과 新規建設로 施設能力을 꾸준히 擴充하여 왔지만 1979年현재 925萬톤의 生産能力을 갖추고 800萬톤을 生産함으로써 韓國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化學工業 關聯指標 (1979 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南 : 北
化學肥料生產	成分千%	1,456	589	2.5 : 1
農藥生產	實量千%	208	24	8.7 : 1
合成樹脂生產	千%	523	100	5.2 : 1
精油能力	千BPSD	580	67	8.7 : 1
시멘트生產能力	萬%	2,040	925	2.2 : 1

資料 : 韓國 ; 商工部, 北韓 ; 國土統一院

4. 輕工業

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建設에만 몰두하여 住民들의 日常生活과 관련된 輕工業部門의 建設을 극도로 抑制해 왔다. 그 結果 國民들의 消費生活은 전혀 무시되다시피 하였으며 더우기 閉鎖主義 經濟體制下에서 海外市場과의 交流도 없었기 때문에 消費財産業의 發達은 期待할 수도 없었다.

이에 반하여 처음부터 輸入代替産業에서 출발하여 이를 다시 輸出産業化함으로써 高度成長을 가능케 하였던 韓國의 輕工業은 北韓과는 比較가 안될 정도의 높은 水準이다. 織物 衣類 合板, 신발 등 1979年현재 76億 달러 에 달하는 輕工業 製品을 世界 곳곳에 輸出하고 있다.

여기서 南北韓間에 比較가 가능한 纖維工業만을 살펴 보기로

하자.

北韓은 지난 6 個年計劃期間中에 化學纖維의 生産基地를 整備, 補強하여 비닐론 生産能力을 年 5 萬톤으로 擴張하고 스프와 人絹絲의 生産도 增大시키는 동시에 紡織 및 紡績工場의 新設과 化學纖維 紡績設備의 增設을 통해 總織物生産能力이 6 億 M에 달하였다고 發表하였다. 그런데 韓國의 化學纖維 生産能力은 1978 年에 385 千톤으로 北韓의 約 8 倍에 이르며 織物은 1979 年에 16.5 億 M를 生産함으로써 北韓生産量 5.8 億 M의 2.8 倍 水準을 기록하고 있다. 北韓은 紡織工業에 대한 2차 7 個年計劃의 目標을 紡績 및 紡織設備의 近代化와 高速度化에 두고 새로운 紡績工場을 增設함으로써 1984 年 織物生産量을 8 億 M로 늘이도록 計劃하고 있다. 이러한 計劃이 元활히 達成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 韓國生産量의 절반수준에 不過한 것이다.

纖維類의 輸出에 있어서 北韓의 輸出主宗品目은 고치와 生絲인데 輸出物量은 꾸준한 增加를 보여 1978 年 對日本輸出額이 17 百萬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의 韓國의 對日輸出額 245 百萬弗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水準이다. 이밖에 北韓은 豊富한 女性勞動力을 利用하여 蘇聯등 一部 共產圈諸國에 대해 被服類등 봉제품을 輸出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金額은 작다. 그런데 그 輸出品이 染色, 加工 및 後處理技術의 未熟으로 인해 品質이 粗惡하다.

IV. 社會間接資本

韓國은 第1次 經濟開發計劃으로써 工業化를 추진하면서부터 社會間接設施의 擴充이 先決課題임을 認識하고 同部門에 대한 集中投資를 實施하였다. 따라서 總投資에 대한 社會間接資本投資比率은 60年代에 36.4%, 70年代에는 34.7%에 이르러 製造業投資比率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다른 共產圈諸國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間接資本을 一種의 非生産的投資로서 定義하여 開發의 優先對象에서 除外하여 왔다. 그러므로 社會間接資本이 總投資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相對적으로 낮은 25%내외에 머물러 왔다. 이와 같은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不振으로 말미암아 이 部門이 다른 部門의 發展까지도 制約하는 隘路要因으로 抬頭됨으로써 北韓은 그 打開에 腐心하고 있다.

1. 電力

發電設施은 解放當時만 하더라도 水資源 등 地形的인 與件으로 全設施의 92%가 北韓地域에 偏在함으로써 電力生産에서 北韓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工業化의 基盤事業으로서 發電設施을 크게 擴充해감에 따라 그 隔差는 急速히 縮少되어 1972年부터는 施設用 量面에서 韓國이 北韓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1976年부터는 發

電量에서도 優位를 占하였다. 1979年 現在 韓國의 發電施設容量과 發電量은 8,033 Kw와 356億 KWH로 北韓의 5,060 Kw 246億 KWH에 비하여 각각 59%, 45%씩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특히 韓國은 特統的인 電力施設投資의 擴充과 아울러 電力負荷의 平準化에 努力을 기울인 결과 79년에는 20%에 달하

發電施設 및 發電量

區分 年度	韓 國		北 韓	
	施設容量 (千 Kw)	發電量 (億 KWH)	施設容量 (千 Kw)	發電量 (億 KWH)
1962	434	18	1,990	114
1965	769	32	2,227	133
1970	2,288	92	2,800	165
1972	3,871	118	3,430	192
1974	4,523	168	4,208	228
1976	4,810	231	4,510	220
1978	6,916	315	5,060	246
1979	8,033	356	5,060	246

資料：韓國；動力資源部，北韓；國土統一院

는 豫備電力을 갖는 좋은 成果를 보이고 있다.

電源別 構成을 보면 北韓의 경우 豐富한 水資源을 利用하여 水力中心의 電源體系를 갖고 있었으나 水力發電이 지니고 있는

降雨量에 따른 電力供給의 季節的 不均衡을 解決하기 위하여 火力發電所 建設을 적극 推進함으로써 最近에는 水, 火力發電比率이 半半程度인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火力發電의 燃料로서는 大部分 自體에서 生産되는 石炭을 使用하고 있어 全體石炭量의 40%以上이 火力發電에 利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1978年 大同江流域에 最初로 潮力發電所를 建設하였는데 그 規模는 正確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西海岸의 潮力利用 可能性을 打診하기 위한 小規模의 初期 試驗段階發電所인 것으로 추측된다.

韓國은 水力對 火力의 比率이 11%對 89%로 火力發電의 比重이 壓倒적으로 높으며 火力發電의 燃料로서는 주로 石油가 利用되고 있다. 특히 韓國은 電源의 多樣化를 期하기 위하여 1977年 古里原子力發電所(施設容量 587 Mw)를 完工하여 1979年 現在 總電力生産의 8.9%를 原子力에 依存하고 있으며 1988년까지는 總11基 9,116 Mw를 建設하여 全體電力中 原子力發電이 차지하는 比率은 37.2%로 높일 計劃이다.

2. 輸送

輸送의 與件에 있어서 韓國은 北韓에 비해 有利한 地形을 가지고 있다. 北韓보다 山岳地域이 적기 때문에 陸運施設基盤의 擴充이 容易할 뿐만 아니라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海運에 의한 沿岸輸送도 발달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韓國은 이와 같은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여 鐵道, 道路, 海運, 航空등이 高루 발달함으로써 輸送手段이 分散되어 分擔體系를 갖추고 있다.

즉 無煙炭, 肥料, 鉍石, 시멘트, 糧穀, 木材, 油類 등 重量貨物은 鐵道와 海運을 利用하고 그밖의 雜貨를 비롯한 輕量貨物은 道路部門이 主로 擔當하고 있다. 1979年現在 貨物의 輸送負擔率은 鐵道가 43.1%, 道路 28.6%, 海運 28.3%의 均衡的인 輸送體系를 갖고 있다. 經濟發展은 貨物輸送量의 增加와 더불어 貨物構成의 變化를 招來함으로써 새로운 輸送分擔體系의 確立을 要求하게 되는데 韓國은 이에 適切한 輸送體系를 갖추어 옴으로써 産業發展

輸送手段別 分擔率(貨物)

單位：%

區 分	韓 國			北 韓	
	1961	1972	1979	1965	1978
鐵 道	90.8	53.1	43.1	92	85
公 路	8.4	18.3	28.6	6	12
海 運	3.5	28.6	28.3	2	3
計	100.0	100.0	100.0	100	100

資料：韓國；交通部，北韓；國土統一院

과 經濟成長을 促進시켜 왔다.

한편 北韓은 1978年 現在 鐵道에 대한 依存도가 85%에 이르고 있으며 道路輸送이나 海運輸送은 補助手段에 지나지 않는 特徵的인 輸送體系를 갖추고 있다. 北韓의 工業地帶가 東西海岸地帶를 따라 立地하였기 때문에 이들 工業地帶를 서로 連結하는 沿岸輸送이 重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不可能한게다가 道路條件과 陸路輸送手段의 制約으로 鐵道輸送에 過度 依存하고 있는 형편이다.

北韓은 鐵道나 道路建設에 있어서 山岳과 河川을 克服해야 하기 때문에 投資効率が 相對적으로 매우 낮다. 더욱기 이에 必要한 投資資源마저 軍需産業에 優先順位를 빼앗겨 70年代에 들어와서는 輸送力이 物動量增加를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輸送이 成長을 制約하는 隘路部門으로 등장하고 있다.

韓國과 北韓의 各 輸送手段別 輸送力量을 比較해 보자.

먼저 鐵道에 있어서는 韓國은 1979年에 鐵道總延長이 5,791 km이고 이중 419 km가 電鐵化되어 있는데 대해 北韓은 鐵道總延長 4,322 km에 電鐵은 1,968 km로 電鐵化率이 45.5%에 달하고 있다. 北韓의 電鐵化率이 이와같이 높은 것은 일찌기 剩餘電力을 鐵道部門에 利用한 데다가 鐵道部門의 輸送負擔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牽引力이 좋은 電鐵로의 轉換이 不可避했기 때문이다.

韓國의 道路總延長은 45,955 km, 總面積에 대한 道路密度가

0.46으로北韓의 20,775 km, 0.17에 비하여 2.5배 이상이다.

특히 韓國은 1960年代부터 道路의 高速化에 注力하여 高速道路延長이 道路總延長의 3%에 달하는 1,225 km에 달함으로써 道路貨物의 迅速한 輸送은 물론 全國의 1日生活圈을 이룩하였다. 한편 北韓은 1979년에 平壤~元山間과 平壤~南浦間의 高速化道路 246 km를 開通하였다. 道路鋪裝은 韓國이 總道路에 대한 鋪裝道路의 比率이 30%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高速道路와 平壤을 中心으로 한 一部幹線道路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非鋪裝狀態로 鋪裝比率은 5%未滿이다. 한편 道路輸送手段을 보면 韓國은 1979년에 乘用車 241千臺, 貨物車 215千臺 버스 38千臺 등 總 494千臺가 運行되고 있다. 이에 대해 北韓의 總車輛保有臺數는 10萬臺未滿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海運에 있어서 韓國은 그동안 急増하는 輸出入物動量의 處理를 위하여 꾸준히 港灣施設擴張을 기하였는 바 1979년에 港灣荷役能力이 75百萬噸, 船舶保有噸數가 4,837千噸에 이르고 輸出入貨物의 國籍船積取率도 47%에 달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70年代이후 物動量의 增加와 對外交易의 擴大趨勢와 더불어 積極적인 港灣施設擴張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北韓의 總荷役能力은 38百萬噸, 船舶保有噸數는 500千噸정도로 推定되어 韓國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航空에 있어서 韓國은 1979년에 旅客輸送 480萬名, 貨物輸送 167千噸으로 급속한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航空機保有臺數는 38

臺로 이중 33臺가 大型 제트機이다. 航路는 國內線 12個 國際線 38個이고 1979年末 現在 航空協定締結國家數는 25個國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大部分이 프로펠라機인 小型航空機 24臺를 保有하고 있어 그 規模面에서 매우 零細하다.

航空路線은 1959年 平壤~모스크바間, 平壤~北京間 定期路線이 開設되었으며 國內航路는 1960年 廢鎖하였다가 1970年에 다시 復活시켰다.

輸送關聯主要指標 (1979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南 : 北
陸 運	鐵道總延長	km	5,791	4,322	1.3 : 1
	電 鐵	km	419	1,968	1 : 4.7
	道路總延長	km	45,955	20,775	2.2 : 1
	道路密度	道路延長 / 國土面積	0.46	0.17	2.7 : 1
	高 速 道 路	km	1,225	246	5.0 : 1
	自動車運行臺數	千 臺	459	100 未滿	5.0 : 1
海 運	船舶保有屯數	千 G/T	4,837	500	9.7 : 1
	國籍船積取率	%	47.0	20.0 未滿	2.4 : 1
	荷役能力	千 %	75,000	38,000	2.0 : 1
航 空	航空機保有臺數	臺	38	24	1.6 : 1

資料 : 韓國 ; 交通部, 北韓 ; 國土統一院

3. 通 信

韓國의 通信施設은 60年代 이후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과 함께 급속한 發展을 이룩하여 1978年末現在 240萬回線의 加入電話施設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100人當 電話普及率은 8.1臺에 있다. 技術面에서도 電子交換方式의 實用化를 시작하는 段階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長距離電話施設도 크게 補充되어 594回線에 이르고 서울과 65個 地方都市間에 自動電話가 可能하게 되었다. 또한 1977年 第2衛星通信地球局이 完成되어 非敵性共產圈까지를 망라하는 世界 213個地域과의 通信網이 補充되었으며 201個地域과의 텔렉스 交信이 可能하다.

北韓의 경우에는 1979年現在까지 各 里單位까지 電話架設을 끝냄으로써 30萬臺의 電話를 保有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公共機關爲主의 電話일뿐 個人電話의 利用은 一部 特殊高位層에 制限되고 있다. 國際通信의 경우도 70年代에 들어와 一部 非共產圈 國家와의 個別通信協定을 맺고 있으나 蘇聯과 中央을 仲介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國際電信電話聯盟에도 加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郵政事業에서는 韓國이 2,043個의 郵遞局을 保有하고 있으며 1人當 郵便物利用通數가 27通인데 반해 北韓은 郵遞局數가 1,394個로 推定되며 1人當 19通정도의 利用度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경우 電話施設의 普及이 未洽하기 때문에 郵便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높아 個人交信은 거의 郵便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V. 对 外 去 来

1. 貿易規模

韓國은 1960年代初부터 国内 資本의 不足을 外資로 充當하고 협소한 国内市場의 制約을 海外市場으로 補完하는 이른바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追求해 왔다.

이와같은 開發戰略의 推進은 貧弱한 賦存資源 条件下에서 풍부한 勞動力을 生産資源化하여 急速한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韓國經濟의 不可避한 選擇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韓國은 이러한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높은 投資率의 持續과 貿易規模의 急速한 擴大를 이룩하였으며 이는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이룩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다.

이와는 对照的으로 北韓은 自力更生의 旗幟 아래 閉鎖的인 아우타르키體制를 維持해 왔기 때문에 對外去來에 대해서는 消極的인 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對外去來은 어디까지나 그들 自給自足經濟에 종속된 하나의 補完 手段으로서 看做되어 왔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貿易部 傘下의 國營商社와 그 밖의 協同貿易商社등을 통해 對外貿易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貿易對象國에 있어서도 經濟를 政治目的과 결부시켜 60年代에는 共產圈과의 交易比重이 90% 이상을 점하였으며 第3世界가 그다음이었으며 西方諸國과의 貿易은 별로 重要時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의 貿易政策은 상당한 轉換이 이루어졌다. 外資導入에 대한 관심이 漸高되는 가운데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北韓의 貿易政策變化는 6個年計劃期間中 技術革命을 最高의 課業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서 最新機械類의 輸入增大가 不可避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蘇聯의 技術水準이 西方圈에 비해 뒤지고 蘇聯에 대한 貿易赤字가 相當水準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償還에 問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1973年 石油波動以後 西方先進諸國이 貿易市場擴大策의 一環으로 北韓에 대한 信用供與를 시작한 것도 그 理由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急激한 對西方交易增大는 對外負債의 累増과 償還不能이라는 深刻한 事態를 惹起시킴으로써 北韓의 對西方交易은 1975年이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79年現在 韓國은 輸出 147億弗, 輸入 193億弗로 貿易總額이 340億弗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 北韓은 輸出 11億5千萬弗로 輸入 11億6千萬弗로 貿易總額이 韓國의 7%에도 못미치는 22億1千萬弗에 불과한 實情이다. 더우기 北韓이 70年代에 들어서 對外貿易에 積極的인 政策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970~79年에 年平均 輸出 및 輸入伸張率이 13.6%와 11.4%로 韓國의 37.5%와 28.7%에 절반도 못미치고 있다. 이 점을 勘案할 때 그 隔差는 앞으로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輸出入 推移 (通関基準)

單位：百萬「달러」

区分 年度	韓 国			北 韓			南：北
	輸 出	輸 入	總 額	輸 出	輸 入	總 額	
1970	835.2	1,984.0	2,819.2	366.0	439.0	805.0	3.5:1
1971	1,067.6	2,394.3	3,461.9	301.9	564.1	866.0	4.0:1
1972	1,624.1	2,522.0	4,146.1	399.0	639.7	1,038.7	4.0:1
1973	3,225.0	4,240.3	7,465.3	497.7	842.7	1,340.4	5.6:1
1974	4,460.4	6,851.8	11,312.2	677.2	1,303.1	1,980.3	5.7:1
1975	5,081.0	7,274.4	12,355.4	814.0	1,092.7	1,906.6	6.5:1
1976	7,715.1	8,773.6	16,488.7	658.1	828.8	1,486.9	11.1:1
1977	10,046.5	10,810.5	20,857.0	680.0	820.0	1,500.0	13.9:1
1978	12,710.6	14,971.9	27,682.5	950.0	960.0	1,910.0	14.5:1
1979	15,055.5	20,338.6	35,384.1	1,150.0	1,160.0	2,310.0	15.3:1

資料：韓国；関稅庁，北韓；国土統一院

한편 1979年 現在 国民總生産에 대한 貿易 依存도를 살펴보면 韓国은 輸出依存도가 24.1%, 輸入依存도가 31.6%로 總貿易依存도가 55.7%에 이르고 있으며 北韓은 輸出依存도 9.2%, 輸入依存도 9.3%로 總貿易依存도는 18.5%로 나타나고 있다. 韓国の 貿易依存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이 물고 온 不可避한 歸結이긴 하지만 一國의 經濟가 世界景氣變動에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面에서 昨今과 같이 世界景氣가 沈滯를 거듭할 경

우에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되는 脆弱點을 지니고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라고 하겠다.

2. 貿易構造

輸出商品의 構造를 살펴보면 韓國은 經濟開發計劃이 시작하기 以前인 1961年까지만 하더라도 工產品輸出이 18%에 불과하고 1次產品이 82%를 차지하였다. 그후 工業化가 進陟됨에 따라 工產品比重이 크게 늘어나 1979년에는 工產品이 91%를 차지하고 1次產品은 9%에 不過하다.

品目別 構成에 있어서는 纖維製品(30%), 電子製品(10%), 鐵鋼製品(.7%)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고 이밖에 신발類(5%), 合板 및 木材(3%), 船舶(3%), 機械類(3%) 등으로 되어 있다.

北韓의 輸出은 당초 鐵鉍石 非鐵金屬等 주로 1次產品이었으나 1960年代 半製品輸出의 擴大過程을 거친 후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完製品輸出의 擴大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輸出構造는 여전히 落後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1975年現在 北韓의 輸出이 工產品 35%, 1次產品 65%라는 구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71~76년에 北韓 總貿易額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는 蘇聯과 日本에 대한 貿易構造를 중심으로 輸出商品別 構成을 보면 金屬 및 鐵鋼製品(35%)과 各種 原鉍石과 마그네시아, 크랑카, 石炭, 시멘트 등 鉍物資源(24%)이 大宗을 이루고 農産物(14%), 纖維類(10

%), 機械設備(5%)의 順으로 構成되어 있다.

輸入에 있어서는 韓國이 1979년에 原料 및 燃料의 比重이 58%, 資本財가 31%이며 消費財는 11%에 불과하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機械, 設備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電氣製品 및 日用雜貨가 28%, 化學製品(9%), 金屬製品(9%), 農産物(6%)로 構成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輸出入商品構造를 比較할 때 韓國은 原資材를 輸入하여 이를 加工輸出하는 貿易形態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原資材를 輸出하고 完製品을 주로 輸入하는 相反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韓國은 그동안 貿易規模의 擴大를 위한 積極的인 市場多邊化政策을 推進함으로써 1979年現在 北韓과 蘇聯 등 일부 共產國家를 除外하고는 거의 全世界의 모든 國家와 貿易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래 美國과 日本에 偏重되었던 市場構造도 상당히 改善되었는데 1979年現在 國別 市場占有率은 日本이 28.3%, 美國이 25.4%로 過半을 占하고 EC 諸國 15.2%, 中東 11.9%등이다.

北韓은 1971~76년에 共產圈 15個國家 非共產圈 55個國家等 總70餘個國과 交易關係를 가졌다. 貿易總額에 대한 對象地域別比重은 1963년까지만 해도 共產圈이 90%以上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되었으며 특히 70年代에 들어와 北韓의 對西方經濟와의 接近이 強化됨에 따라 對西方貿易增加率이 크게 높아져 1974년에는

53.6%로 對共產圈 貿易比重을 능가한 境遇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對西方貿易의 擴大가 주로 技術革新을 위한 資本財輸入의 擴大에 의해 主導됨에 따라 外債累增의 問題를 惹起시키는 동시에 外資不足으로 인한 償還不能事態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975年부터는 對西方貿易이 減少하기 시작하였고 다시 對共產圈의 比重이 높아져 1976年現在 共產圈 66.2%, 非共產圈 33.8%의 比重을 보이고 있다. 北韓의 貿易은 蘇聯, 中共, 日本에 偏重 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3個国에 대한 貿易依存度는 각각 30.7%, 24.4%, 16.1%로 總交易量에서 이들 3個国이 차지하는 比重이 71.2%에 이르고 있다.

3. 對外負債

北韓은 그들의 經濟計劃을 實施함에 있어서 1970年以前까지는 中共이나 蘇聯의 援助나 이들과의 바터貿易을 통해 필요한 中間財 및 資本財를 도입하여 왔기 때문에 外債 問題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 北韓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西方先進諸国과 貿易을 擴大함에 따라 外債가 중요한 問題로 提起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北韓의 貿易收支赤字를 보면 1970年까지는 1億弗 미만이었으나 1971年부터는 輸入의 急増과 함께 加速적으로 擴大되어 1974년에는 6億弗을 넘어섰으며 貿易收支赤字의 輸出에 대한 比率도 1970年 0.2에서 1974년에는 1.0에 接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北韓이 先進西方諸國과의 貿易이 擴大되면서 貿易赤字가 크게 늘어난 것은 異質的인 商品市場構造때문에 輸入增大에 相應하는 輸出增加를 기할 수 없었던데 基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北韓 輸出의 大宗을 이루는 1次産品の 輸出增大로서는 資本財 및 基礎原資材의 輸入財源을 마련하기란 不可能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重化學製品의 輸出도 技術水準에서 國際競爭力을 갖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우기 1次石油波動以後 1次産品の 交易條件이 惡化됨에 따라 北韓의 輸出伸張은 크게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結果 北韓은 1973年以後 日本에 대하여 1974年부터는 西歐諸國에 대해 延払輸入分에 대한 償還負擔을 履行하지 못하는 사태에 直面하게 되었다.

1979年末現在 北韓의 對外債務殘額은 약 25億弗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를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率로 보면 20%, 1979年の 輸出總額에 대해서는 2.17倍에 달하는 水準이다.

한편 韓國도 그동안 輸出主導의 高度成長過程에서 輸入의 계속적 인 增加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慢性的인 貿易赤字와 外債의 累增現象이 계속되었다. 1979年末現在 韓國의 長短期外債殘額은 尙그만치 206億弗로 北韓의 약 8倍에 달하고 있으며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重을 보더라도 33.7%로 北韓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서도 韓國이 外債의 支給不能에 빠지거나 그 償還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韓國이 外債에 대해

이처럼 대처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外資의 收容態勢와 對外去來政策의 運用이 北韓과는 다른데서 나온 것이다.

韓國은 對外去來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短期的인 對外均衡의 維持를 위한 貿易規模의 縮小調整이라는 消極的인 方式을 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輸出産業의 開發·成長과 對外資本의 流入을 保進함으로써 長期的인 擴大 均衡을 圖謀하는 積極的인 方式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貿易收支를 비롯한 國際收支의 赤字幅이 量的인 面에서는 擴大된다고 하더라도 輸出規模나 國民總生産에 대한 그 比率은 오히려 꾸준한 下落勢를 보임으로써 支払能力이 向上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韓國經濟가 追求해 온 對外指向的 産業開發戰略이 成功的이었음을 立証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第三章 南北韓産業構造의 展望

I. 産業構造의 改編

韓國은 經濟發展의 制約要因인 國內市場의 狹小와 資本의 不足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동안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戰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工業化戰略의 追求는 必然的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中心의 工業化를 가져 왔다. 그 결과 韓國의 工業은 輸出을 突破口로 하여 눈부신 成長을 기록하였으나 構造面에서는 많은 脆弱性を 內包하여 왔다.

첫째, 工業構造는 그동안 상당히 改善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輕工業의 比重이 높아서 産業基盤이 매우 脆弱한 狀態에 있다. 重化學工業 중에서도 그 核心이라 할 수 있는 機械工業의 比重이 낮다. 機械工業은 北韓이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일찍부터 가장 力點을 두고 開發해 온 分野이다. 그 結果 動力機械 및 工作機械工業에서는 韓國보다 다소 앞서고 있다. 經濟性이 無視된 軍需産業위주의 開發로 少量의 大型機械들도 自体生産하는데 注力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韓國은 비록 大型工作機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이 있더라도 國內外市場需要가 많지 않거나 經濟性에 따라 大量生産이 不可能한 것은 生産하지 않고 輸出과 國內 需要가 큰 電氣, 電子機械 및 輸送用機械를 많이 生産하게 된 것이다.

둘째, 過去와 같은 單純勞動集約的인 輕工業爲主의 工業化過程은

그 스스로의 限界에 부딪혀 더 이상 成長의 原動力 役割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輕工業製品의 需要는 一般的으로 所得彈力性이 낮기 때문에 市場의 擴大에 限界가 있을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保護主義的 傾向의 深化와 輸出市場에서의 後發開發途上國의 挑戰으로 인해 그 將來가 밝지 못하다. 이와 아울러 對內的으로는 內需産業의 相對的 萎縮과 함께 中間財 및 資本財産業의 發達을 遲延시킴으로써 工業部門의 均衡的 發展은 물론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阻害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對內外的인 條件을 克服하고 韓國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의 基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工業構造의 改編이 不可避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工業은 80年代에도 계속 經濟成長의 主導部門이 되어야 할 것이다. 工業構造의 改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長期的인 觀點에서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있는 技能 및 技術集約的인 産業을 重點的으로 育成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産業으로서의 機械工業이 가장 有望한데 그 중에서도 電子 및 電氣機械, 精密機械, 自動車, 造船등이 戰略的인 業種으로 浮刻되고 있다. 이들 重化學工業製品은 技能, 技術集約的이라는 점 이외에도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크기 때문에 成長의 潛在力이 크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知識集約的인 航空機, 컴퓨터, 精密化學 등이 成長産業으로서 脚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輸出産業으로서의 成長은 80年代 後半에 가서야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機械工業은

1982~91년에 年平均 16%¹³⁾의 成長이 展望되어 80年代 韓國 工業의 先導部門의 役割을 담당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技能 및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못지 않게 重要한 重化學工業으로서는 素材工業과 中間財工業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工業은 國內市場의 狹少로 인하여 그 發展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으며 그나마도 政府의 直間接補助와 保護밑에서 자라 왔다.

따라서 聯關産業의 發展이나 國際競爭力의 強化에 적지 않은 阻害要因이 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經濟도 80年代 이후에는 人口나 1人當 所得面에서 國內市場이 크게 擴大될 것이므로 素材 및 中間財工業은 規模의 經濟를 最大限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물론 이들 工業도 그 規模를 國際 單位化함에 따라 輸出展望이 밝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들은 一般的으로 資本集約的인데다가 原料의 海外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輸出産業으로서 育成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따라서 原則적으로 國內需要의 充足에 1次的意義를 두어야 할 것이다. 聯關産業의 급속한 發展에 따른 國內需要의 急增에 힘입어 鉄鋼工業은 1982~86년에 年平均 15%의 높은 成長을 보일 것으로 豫想되고 石油化學은 11%, 시멘트, 유리 및 土石은 年 13% 内外의 成長이 기대된다.¹⁴⁾

註 13)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p.99.

14) 韓國開發研究院, 上揭書, p.99.

이와 같은 重化学工業型 産業構造의 構築을 效果的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一聯의 政策的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産業政策은 輸出支援政策에서 産業構造政策으로의 轉換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産業政策은 輸出増大를 至上目標로 하여 輸出品目에 無關하게 無差別的인 支援을 하여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輸出支援 및 一般産業政策은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을 集中的으로 支援 育成하는 方向으로 轉換될 것이다.

重化学工業은 대부분 複雜한 技術과 老大한 施設投資를 요하므로 先進技術을 과감히 導入하여 消化함은 물론 自体技術開發도 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国内外 需要에 맞추어 開發하되 重複投資로 인한 過剩施設이나 自己資金의 比率이 낮아 財政, 金融支援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民間企業체의 投資를 止揚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北韓의 産業構造改編에 관한 展望은 多分히 政治情勢, 특히 南北韓間의 緊張과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現在의 緊張狀態가 緩和되지 않는 限 北傀의 軍需産業에 置重한 重工業優先政策은 持續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經濟計劃을 樹立할 때마다 내세우는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 發展」이나 「輕工業과 農業의 技術革新의 推進」, 즉 産業構造의 改編은 期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보면 全般的인 産業構造의 改編과 技術革新을 이루기 위해 中共의 4大現代化路線의 進陟狀況을 관찰하면서 中共의 對美, 對日關係改善增進에 便乘하여 그 技術을 間接的으로 導入

하려고 企圖할 것이다. 이에 따라 資本, 資源面에서도 점차 그 需要가 增大하여 海外依存도가 높아지면 外部의 刺戟으로 對內的으로는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優先의 産業構造를 不可避하게 改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할 때 적어도 80年代 前半期까지 北傀의 戰爭再挑發을 抑制하는데 성공한다면 北韓은 軍事産業體制를 緩和하면서 점차 實用主義方向으로 産業構造를 轉換할 展望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II. 에너지 需給 展望

韓國의 에너지消費量은 60年代에 들어와서부터 急速度로 增加되고 있다. 1966~73년에 年平均 10.9%라는 急速한 經濟成長, 製造業과 建設業 先導로 인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그리고 國民生活 水準의 向上 등에 따라 에너지消費增加率이 年平均 9.8%에 달했다. 그러나 1973년의 石油波動을 계기로 에너지消費增加率이 현저히 鈍化되어 1974~75년에 GNP는 年平均 8.5% 成長하였으나 에너지消費增加率は 4.3%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GNP에 대한 에너지需要의 所得彈力值도 1966~73년의 0.9에서 1974~75년에는 0.5로 크게 減少하였다.

그러나 1976年以後 國民經濟가 石油 波動으로 부터 급속히 回復되고 重化學 工業化政策이 本格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에너지需要는 다시 增加趨勢에 있는 가운데 70年代末부터 第2次 石油波動

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消費節約施策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의 産業構造가 資源, 에너지多消費型重化学工業 主導型으로 變貌해 가고 있는데다가 生活水準도 急伸張하고 있기 때문에 無理한 消費節約은 GNP 成長率의 鈍化를 誘發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의 最終需要를 産業用, 輸送用, 家庭用, 其他로 大分하여 1986 年の 各 需要部門別 에너지需要構成을 展望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産業用燃料의 主宗은 石油, 電力, 石炭의 順인데 1986 年에 가서는 現在보다 石油의 占有率이 低下하고 石炭과 電氣의 占有率은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製鉄用 有煙炭輸入이 增加함으로써 石炭의 比重은 1975 年の 19%에서 1986 年에 23%로 增加하는 반면 石油은 49%에서 44%로 줄고 電力은 31%에서 34%로 다소 늘어 난다.

輸送用 에너지源은 液体燃料인 石油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国内石炭生産의 限界때문에 輸送用으로 一部 消費되고 있는 石炭을 石油로 代替하게 됨에 따라 石油의 比重은 1975 年の 92%에서 1986 年에는 97%로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家庭用 에너지需要는 炊事用과 暖房用燃料에 局限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所得水準이 向上되고 電熱器機가 널리 普及되면 電氣의 需要도 急増할 것으로 보인다. 즉 電力需要의 比重이 1975 年の 7%에서 1986

註 15) 韓国開發研究院, 上掲書 p.119.

년에는 20%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炊事 및 暖房用 燃料도 역시 크게 增加할 것으로 보이는데 煉炭供給량의 限界때문에 都市用가스, 太陽熱 그리고 石油에로의 燃料 轉換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需要에 副應하는 에너지供給은 国内에너지源을 最大限으로 開發해야 되겠으나 그 供給의 主源은 결국 輸入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長期에너지供給計劃이 일단 樹立되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源別 世界需給事情에 可變적으로 對應하여 修正해 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供給源을 国内에너지, 輸入에너지, 그리고 原子力으로 大分하여 보면 国内에너지의 供給比重은 1975년의 43%에서 1986년에 18% 水準으로 계속 減少될 것이다. 반면에 輸入에너지의 比重은 1975년의 57%에서 1986년에는 72%로 增加하고 原子力이 10%의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国内賦存 石炭의 最大生産량은 1981년에 2,100萬톤, 그리고 1984~88年 以後에는 採炭의 深部化에 따라 2,400萬톤을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国内水力 資源은 1986년에 약 213萬톤(無煙炭換算)까지 最大限으로 開發하게 될 것이다. 16)

한편 北韓의 에너지源構成을 보면 石炭의 比重이 圧倒的이다. 産業體系도 石炭化學 및 石炭動力工業體系에 의거하고 있어 最近의 世

註 16) 韓國開發研究院, 上掲書, p.120.

界的 油類波動의 餘波를 그리 심하게 받지 않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北韓은 에너지에서 뿐만 아니라 産業全般에 걸쳐 石油時代로의 移行을 6個年計劃(1971~76年)부터 試圖한 바 있다. 그러나 全量 輸入에 依存하는 油類導入에 따른 外貨不足, 供給先의 不安定으로 에너지構成의 高度化를 의미하는 石油時代로의 移行에 成功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北韓의 供給에너지源 構成의 展望을 보면 水力發電의 比重은 계속 減少趨勢를 보일 것이며 火力發電과 石炭內燃力의 比重은 現在의 水準을 당분간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水力發電의 減少分은 油類供給의 增加로 代替되리라고 豫想된다. 그런데 原油는 현재 蘇聯과 中共으로 부터 供給받고 있으나 여러가지 政治, 經濟的條件이 介在되어 있으므로 導入先의 多邊化를 기하지 않는 限 不安定한 供給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北傀는 70年代에 들어서면서 石油化學工業을 導入하여 工產品의 多樣化와 質的 改善을 가져 오려고 試圖해 오고 있기 때문에 石炭時代로 부터 脫皮하여 石油中心의 産業體系로의 移行은 不可避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北傀는 蘇聯 및 中共의 競爭的 援助를 誘引하여 計劃된 精油 施設의 建設을 促進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다.

同時에 石炭의 自給體系를 일층 強化하여 에너지의 供給과 需要의 均衡化를 圖謀하고자 注力할 것이다. 北傀는 이미 內陸地方 全域에 대한 25萬分지 1의 地質圈를 작성하여 이를 根拠로 現存 炭鉞山의 細部作業探査와 新候補地 造成을 위한 展望探査를 併

行하면서 地質探査要員의 確保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海底油田 내지는 海底가스田의 發掘을 위한 國際協力도 推進하고 있다.¹⁷⁾

1978年9月 北傀는 從前의 「地質總局」을 「資源開發部」로 擴大 改編한 바 있는데 이는 鉍物資源의 開發과 燃料 및 動力의 增産, 節約을 強化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經濟計劃遂行에 있어서 에너지開發이 그 成敗를 좌우하는 關鍵임을 示唆하고 있다.

Ⅲ. 農水産物需給 展望

韓國은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課題로서 農業生産基盤의 補充, 農業의 機械化 등으로 農業成長의 持續과 農業經營의 構造的 改善, 食糧增産과 自給率向上, 農漁民의 所得增大 및 都農間의 社會的 經濟的 隔差縮小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基本政策의 方向을 ①農林水産部門의 年平均 4%의 安定成長의 持續 ②米麦의 自給持續과 其他食糧의 增進과 밀, 콩, 옥수수의 不足量導入으로 食糧供給의 安定化 ③農漁民所得增大,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새마을運動을 바탕으로 한 生産性向上과 環境改善 ④農水産物流通體系의 整備強化, 農水協機能의 改善 등에 의한 農業經營 構造的 近代化에 두었다.

이러한 政策方向에서 設定된 計劃의 內容과 政策手段은 다음과 같다.

註17) 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1979, 第5卷 第4号, pp.141-142.

1. 農業生産의 增大

1981年의 糧穀生産目標은 쌀 5,472千톤, 보리 1,875千톤, 밀 284千톤, 콩 451千톤 등 9,348千톤으로 全体糧穀은 期間中 年平均 2.3% 增加하여 人口增加率을 크게 앞지를 것이다. 이를 위해 種子 更新의 계속, 優良新品種의 普及, 土壤肥沃度增進, 病虫害의 防除를 위한 地域豫察体制強化, 營農技術의 革新 등에 力點을 두게 되어 있다.

2. 農業構造의 近代化

1981年에 水利畚率을 94%까지 提高하고 大單位綜合開發事業을 擴大함으로써 耕地의 生産性을 높이며 農業機械化의 領域을 넓혀 一貫機械化의 基盤을 다지게 된다. 農業保險을 新設하여 農作物 被害로 부터 農民의 所得과 生活를 安定시키고 地域標準經營指標의 作成으로 地域에 보다 有利한 作付體系를 確立한다.

3. 水産資源의 開發

1981年의 水産物生産을 1975年의 1.7倍가 增加한 3,563千톤으로 잡고 輸出은 1975年의 429百萬弗에서 1981年에 824百萬弗로 增大시킨다. 특히 遠洋漁業에 있어서는 印度洋, 中東海域등에 새로운 漁場을 開拓하고 各國과 漁業協定, 合作投資의 擴大 등을 통하여 市場을 確保할 것이다.

4. 北韓의 農業生産 展望

한편 北韓의 경우 80年代初期의 農業生産을 展望해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추측이 可能하다.

① 農業生産의 基盤을 擴大하기 위해 水利施設을 改修해 나가는 方向에 力點을 들 것으로 보인다.

② 耕地擴張은 이미 開墾이나 干拓事業이 限界點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外延的인 擴大보다는 內延的인 補充에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즉 耕地利用率을 높이기 위한 多毛作에 힘을 기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早生種開發과 栽培法改善이 進行되어야 하므로 이 方面의 研究에 力點을 두게 될 것이다.

③ 營農機械化에 있어서는 특히 山間地의 機械化를 위한 中型트랙터의 生産에 重點을 들 可能性이 있다.

④ 北韓에서는 주로 窒素肥料가 硫安이기 때문에 土壤의 酸性化를 방지하기 위해 石灰質肥料의 增産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⑤ 벼의 收穫量을 늘이기 위한 一環策으로서 早熟, 耐冷, 多收性 品種을 導入, 栽培하는데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에서는 強勢現象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날 複交雜種의 育成에 力點을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1981년에 가서는 쌀生産量은 1976年보다 10%정도 늘어난 2,073千톤, 옥수수生産量도 역시 10%정도 增加한 2,366千톤쯤 되지 않을까 展望된다.

이상과 같은 農業增産策에 따라 食糧의 總生産量은 薯類까지 包含하여 1981년에 약 5,000千톤에 달할 것으로 推定된다. 이것

은 1976 年의 推定量 4,543 千톤보다 10 % 정도가 늘어난 水準이
기 때문에 年平均 增産率은 2 % 정도에 불과하다. 이 2 %의 增
産率은 北韓의 人口自然增加率 2.4 %를 下廻하기 때문에 食糧需給
事情이 현재보다 改善될 展望은 보이지 않는다. 더우기 所謂
「戰時食糧備蓄」을 위한 消費抑制로 現在 北韓住民들의 食生活은
그 質量面에서 貧弱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住民들
의 深刻한 食生活難은 가까운 將來에 解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